

운송/조선

Analyst 김민지

02. 3779-8843

mjkim@etrade.co.kr

운송

해외직구 증가, 그리고 택배 산업

2013년 해외특송 수입액 15조원 돌파

'해외직구족'이 빠르게 증가하며 2013년 해외특송을 통한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인 15조 원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특송을 통한 수입물량 건수도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772만 건을 기록했다.

2013년 해외직구 건수 1,116만건(40.5% yoy), 수입액 10.4억 달러(47.2% yoy)

해외특송을 이용한 수입급증은 해외직구의 폭발적 성장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6.5%씩 늘며 1,116만 건을 기록했고, 수입액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해외특송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쇼핑물량은 2009년 30.8%에서 2013년 62.9%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분간 해외직구 증가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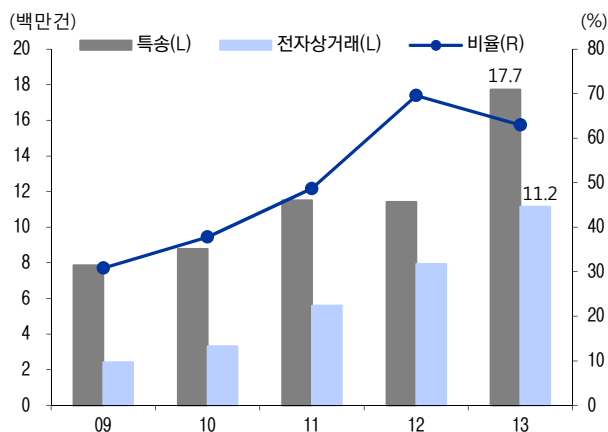
지난 6월, 관세청에서 통관 규제 완화 및 반품 시 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게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는 병행수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경로 다변화, 통관인증 기준 완화, A/S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해외직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 물량 중 해외직구 비중 낮지만...

단순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량 건수를 택배 물동량에 견주어보면 2013년 기준 해외직구에 의한 택배 물동량은 전체 택배 물동량의 0.7% 비중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0% 성장을 적용할 경우 건수는 6천만건으로 증가되며, 전체 택배 물동량(연평균 5% 성장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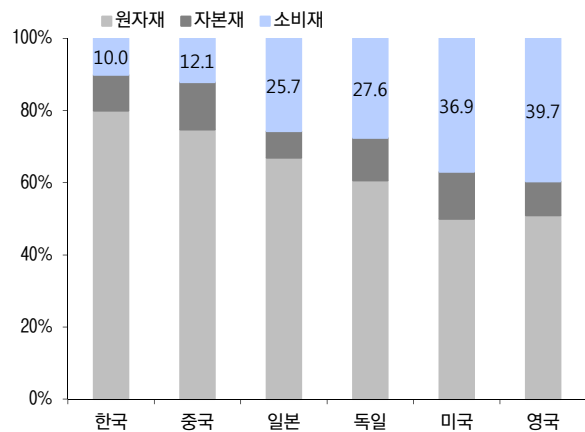
한국 택배 산업에 해외직구가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택배 산업이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구의 활성화는 무시하지 못할 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아 어려운 '반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해외 반품 택배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의 과정을 비추어 볼 때(그림 4 참조), 국내 배송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 중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림1 우리나라의 연도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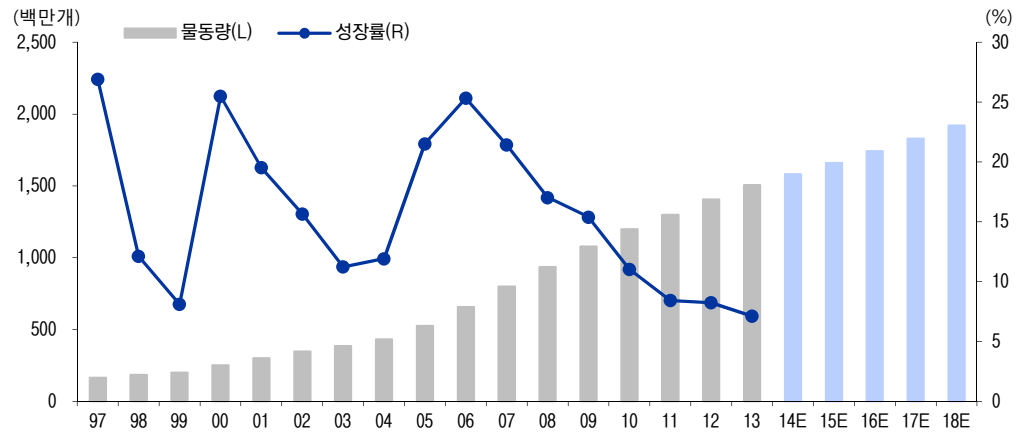
그림2 2013년 주요 국가별 수입 중 소비재 비중 추이



주: 중국은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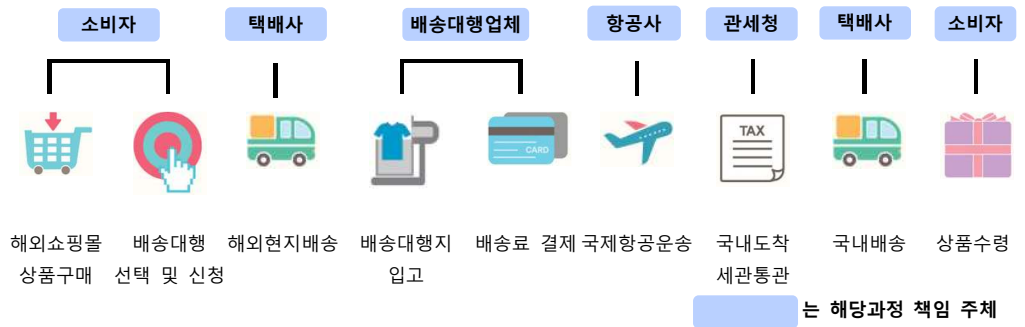
자료: OECD,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우리나라의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물류신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해외직구 과정(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민지)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 단계	Strong Buy (강력매수)	50% 이상 기대	2012 년 5 월 14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 단계 (Buy / Hold / Sell)에서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로 변경
		Buy (매수)	15%~50% 기대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15%~15% 기대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N.R. (Not Rated)	등급보류	